

이순신 장군의 비애를 느끼다.

- 현충사와 이충무공 묘소에 다녀와서

응모자 : 남 철희

흔히들 여름을 청춘으로 비유하지만 나의 여름은 음침하다. 장관 속 곰팡이 냄새처럼 나의 여름, 나의 청춘은 눅눅하고 습하다. 작가 지망생으로 나는 기점으로 삼은 나이가 있었다. 32살. 초등학생 때인지, 중학생 때인지 아니면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이순신 장군은 28살 무과 시험에 떨어지고 절치부심 끝에 32살에 합격했다는 구절이 내 마음에 와 닿았다. 나도 32살쯤이면 등단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을 느긋하게 갖고 있었다. 하지만 32살이 되어도 23살과 다를 바 없다. 나에게는 노력도, 끈기도, 재능도 부족하다. 이런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자책만 하다 문득 이순신 장군 묘에 가볼까, 거기서 해답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묘에서 그의 기를 느끼고 그의 인생을 다시 짚어보며 내 마음의 추로 삼고 싶었다.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나는 나를 잡아줄 추가 필요했다. 하지만 차도 없고 돈도 없는 나는 막상 이순신 묘를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몰랐다. 인터넷으로 차편을 검색하는 중 나는 <아산시티투어>를 알게 되었다. 온양온천역에서 출발해서 현충사, 공세리 성당, 이순신 장군 묘, 온양민속박물관 코스로 4000원이다.(이 코스는 <역사문화코스> 수, 금, 일요일에만 운행한다. 봄, 가을에는 이순신테마코스가 화, 일요일에 있다.) 차편에 애를 먹었던 나로선 황재한 기분이었다. 공세리 성당과 온양민속박물관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이었지만 그곳도 그곳 나름대로 즐거울 거라 생각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나는 8월 5일 수요일에 예약하였다. 평일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40인 관광버스가 거의 찼다. 영화 명량의 인기도 한풀 꺾어진 상태일 텐데도 이순신 장군의 인기는 여전했다. 온양온천역에 도착하면 온천의 도시라는 느낌도 있지만 역 앞에 이충무공 사적비가 있어 이순신 장군의 고장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다. 버스는 이 앞에서 출발한다. 10시 20분쯤 온양온천역에 도착하여 관광안내소에서 티켓을 받고 사적비를 둘러보았다. 국민 성금으로 만든 이 사적비는 1951년에 만들어졌다. 시기적으로는 전쟁 와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애뜻했다. 전쟁 통에도 이순신 장군의 사적비를 세웠을 때 국민은 이순신 장군의 힘이라도 빌렸으면 하는 소망이 담겼는지도 모르겠다.

버스는 10시 40분에 출발하였다. 가이드분이 일정에 관해 설명해주셨고 첫 코스

는 현충사라고 말씀해주셨다. 가는 내내 아산의 역사와 현충사가 만들어진 배경,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생애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다. 책으로 본 역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들은 역사는 체감이 남달랐다. 내가 생각한 현충사는 단순히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한 사원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건 내 기우에 불과했다.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의 성역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사원철폐로 없어진 현충사 재건하였고 지금의 현충사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의 집안은 원래 문인집안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기묘사화에 얽혀 집안은 기울었다고 한다. 20살에 보성군수의 무남독녀와 혼인하였는데 이 보성군수의 집안은 대단한 부자여서 이순신 장군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고 한다. 장인은 이순신 장군의 면모를 보고 문과 시험이 아니라 무과 시험을 보는 것이 어떠냐고 회유했고 처음엔 문과 시험을 치르겠다는 이순신 장군은 결국 무과 시험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만약 장인이 이순신 장군을 면모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순간 아찔해졌다. 이순신 장군의 셋째 아들 이면의 이야기도 슬펐다. 가이드 분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이면의 묘에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현충사는 10시 50분에 도착하였다. 시간은 1시간을 주었는데 처음엔 1시간이 길게 느껴졌으나 처음 본 현충사를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큰 곳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제대로 코스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걸으면 이 넓은 현충사에서 미아가 될 것 같았다. 무엇보다 1시간의 시간밖에 여유가 없어 나는 부지런히 걸었다. 나의 코스는 충무문을 지나 정려를 거쳐 이면공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려와 충무공 고택을 보고 홍살문, 충의문을 지나 현충사에 도착하여 이순신 장군을 참배하는 것이다.

8월은 초는 무더운 여름날의 정점이었다. 양산을 가져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초입에는 그늘이 없어 힘들었다. 정려를 거쳐 활터를 지나(이순신 장군이 훈련하던 장소로 보성군수는 자신의 사위를 위하여 산을 깎아 활터를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대단한 사위사랑이다.) 이면공의 묘에 도착하였다. 초입에서 15분 걸었을 뿐인데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계단의 높이에 기합하였다. 하지만 가이드분이 설명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차근차근 계단을 밟았다.

이면은 이순신 장군의 셋째 아들로 고향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명량해전에서 대패한 왜군에 의해 처참하게 죽었다고 한다. 이 죽음에는 여러 가지 야사(마을을 지키다 전사하였다는 설도 있다.)가 전해지고 있는데 셋째 아들 면에 대한 이야기는 난중일기에도 고스란히 있었다. 단순히 책으로 난중일기를 접했을 때 이순신 장군은 나라에 충성하는 신하이자 효자였다. 늘 어머니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

였다. 무인으로서 가족의 정보다는 충과 효가 전부인 사람으로 보였는데 아들에 대한 죽음의 글귀는 짧지만 서글펐다. 통곡. 내가 지은 죄가 네게 미친것이나? 나는 잊고 있었던 난중일기의 글귀가 떠올랐다. 장군은 얼마나 많은 비애를 안고 살아야 했던가. 나의 슬픔은 그저 장군에 비하면 얼마나 사치인가 새삼 느끼며 처참하게 죽어야 했던 면이 슬퍼서 제일 먼저 이면공의 묘에 가고 싶었다. 높은 계단을 오르고 나는 제일 먼저 절을 올렸다. 그 청춘이 슬펐고 아까웠다. 술이라도 있으면 따라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 안타까웠다. 나는 쓸쓸한 그의 묘를 둘러보고 내려와 충무공 고택을 둘러보았다. 당시 살던 생가를 잘 재현에 놓았다. 날이 더워 가져온 생수를 다 마셔도 목이 땀는데 다행이 우물터에 물이 나와 갈증을 가실 수 있었다. 조금 기운을 차린 나는 현충사로 올랐다. 다행이 조금 올라가자 그늘진 나무들이 있어 올라가기 편했다. 이순신 영정이 있는 현충사. 나는 가쁜 숨을 가라앉히고 향을 피워 묵념하였다. 나는 당신을 종이 속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슬픔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나의 반성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정말 살아 계신다면 감사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었다. 묵념을 마치고 현충사를 내려온 뒤 정려의 연못을 구경하고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전시실과 교육관이 있는데 전시실은 1층과 지하로 구성되어 있다. 이순신 장군의 유물과 임진왜란에 대한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시관을 마지막 코스로 정한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 전시관의 시원한 공기가 땀을 씻겨주었기 때문이다. 이 전시관에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국보와 보물이 여럿 있다. 그중 내 마음에 다가온 건 보물 제326호인 충무공 장검이다. 실제로 쓰인 장검은 아니지만 장군은 항상 이 칼을 곁에 두며 마음을 가다듬었다고 한다.

내 마음에도 이 칼이 필요하다. 내 마음에는 칼이 없었다. 이 칼을 내 마음에도 새겨야 한다. 나는 이순신 장군의 장검을 보며 최대한 내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했다. 기념품으로 이 장검을 팔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시관을 둘러본 후 다시 행선지를 위해 버스에 탔다.

점심을 먹고(점심은 각자 사 먹거나 챙겨오면 된다.) 아름다운 공세리 성당을 거쳐 내가 가고 싶어 했던 이순신 장군 묘소에 도착했다. 이순신 장군의 사적지는 물과 인연이 깊은 것 같다. 장군 묘소에 들어서기 전에 약수터가 있기 때문이다. 더운 몸을 시원한 약수로 해갈하고 이순신 장군 묘소에 올라갔다. 산에 있는 장군의 묘는 현충사에 비해 선선하고 걷기도 좋았다.

이순신 장군의 묘는 현충사에 비해 차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충사 가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임진왜란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라면 이순신 장군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무 사이로 난 길로 묘를 오르며 어쩐지 아는 친척분의 묘를 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그만큼 이순신 장군이 많이 친숙해졌다. 절을 두 번 하고 묘를 둘러봤다. 문인석과 양 모양의 석상은 이순신 장군의 묘와 함께 세월의 때가 많이 뒀다. 보안, 보수의 문제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세월의 무게였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매우 안타깝고 슬펐다.

나는 사실 이순신 장군에게 많은 소원을 빌 생각이었다.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를 좀 더 성실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순신 장군의 묘소에 오면 그의 기를 받고 좀 더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더 컸다. 한 인간의 슬픔, 비애보다는 그의 영웅적인 면에만 집착했었다. 나는 그가 단단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감내를 하며 아파했는지를 알지 못했다. 단지 종이 책에 의지해서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신화로 생각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현충사와 그의 묘를 둘러보고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다.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여행이었다. 나는 좀 더 진지하게 이곳을 와야 했다. 마음이 묵직해진 채 나는 묘소를 내려왔다.

처음 의도였던, 이순신 장군의 기를 받고 정신을 바짝 차리며 살자는 내 각오는 실패했다. 내 마음에 칼이 없고 각오가 없는데 순간에 내 마음이 단단해질 리가 없다. 하지만 이순신, 조선을 구한 영웅이 아닌 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 가족을 잃었던 슬픔에 애가 끊어지고 나라가 왜군의 손에 아수라장이 되는 걸 아파하며 조국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고 아파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 손으로 조국을 구해내고자 했던 실천력, 행동력. 그는 한시도 가만히 있는 적이 없었다. 난 중일기를 보면 그는 끊임없이 공무를 행하고 훈련을 한다. 하지만 나는 그저 기적만 바라고 있었다. 나에겐 노력도 없었고 계획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다. 이제 자책은 그만하자고 생각했다. 32살 이순신. 그가 과거에 합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책을 했을지 무엇보다 나는 알 수 있다. 33살이 되어도 나의 인생은 장판 속 곱팡이 냄새처럼 우울할지 모른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고 생각했다. 술한 슬픔에도 앞으로 한 발짝 전진했던 이순신 장군처럼 나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자고 결심한다.